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드래곤플라이 협약



광주정보문화진흥원(원장 이정현)과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지난 7일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와 VR 체험형 콘텐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제공>

전남대병원-한국뇌연구원 업무협약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오른쪽)은 최근 한국뇌연구원(원장 김경진)과 뇌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호남대 학생홍보대사 공개 오디션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지난 8일 '제10기 학생홍보대사 공개 오디션'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송원대, 베트남 하노이 폴리텍대학과 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 폴리텍대학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원대 제공>

“세월호 반드시 기억돼야... 사건 진실 꼭 밝혀지길”

‘세월호 기억의 숲’ 찾은 오드리 햅번 손녀 엠마·손자 아론 씨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난 9일 진도군 임회면 ‘세월호 기억의 숲’을 찾은 오드리 햅번의 손녀 엠마 캐슬린 햅번 페러(21)와 손자 아론 호퍼 페러(20)는 “기억하는 것은 곧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기억의 숲’은 오드리 햅번의 장남이자 ‘오드리 햅번 어린이재단’의 설립자인 셉 햅번 페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엠마와 아론은 1년 전 아버지 셉 햅번 페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기억의 숲 프로젝트가 끝나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날 진도를 찾았다.

엠마는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세월호 비극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과 같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이지만 슬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론은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생명과 인류애, 그리고 회복의 씨앗이었다”며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비극이었지만 이곳에서

나무 한그루 한그루 희생된 영혼 슬픔보다 기쁨 가득한 장소되길 실종자 9명 귀환 속히 이뤄져야

만큼은 자연이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억의 숲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격려도 많았다. 선하고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함께한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뜻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들이 그렸던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들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분들께서 제3세계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저희가 진심으로 소망했던 바이고,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사랑이란 것은 가라앉을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햅번 가족은 마지막으로 “2014년 4월16일 희생된 소중한 한 분 한 분, 모두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오드리 햅번의 손녀인 엠마 캐슬린 햅번 페러와 손자 아론 호퍼 페러 남매가 9일 진도군 임회면 무궁화동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 행사에 앞서 기억의 숲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홉 분의 귀환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향년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오드리 햅번은 영화계 은퇴 후 유니세프 대사로 인권운동과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오지를 찾다니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했다. 오드리 햅번의 아들 셉 햅번 페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뜻을 이어 어린이재단을 설립, 세계의 소외받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

/진도=김경진기자kki@kwangju.co.kr /진도=박현명기자 hypark@kwangju.co.kr



서대영(왼쪽) 상사가 부인 서말이 중사와 벚꽃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제공>

특전사에 광주출신 ‘진짜 서대영 상사’ 있다

‘태양의 후에’ 이름·계급 같아 부인도 특전사 ‘부대 커플’

육군은 TV 드라마 ‘태양의 후에’ 극중인물 서대영 상사와 이름, 계급이 같은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 소속 서대영(30) 상사가 실제 존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출신 서대영 상사는 드라마 속 서대영 상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 서 상사는 지난 1일 특수전사령부 창설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특전용사’로 뽑혀 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특전용사 상은 매년 능력과 품성 면 등 모범적인 대원 1명에게 주어진다. 직무 전문성, 전투력 강화 기여도, 선행 등 23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또 해군특수전·산악전문 과정 모두 1등으로 수료, 여단 주최 음어·암호 경연대회 3회 연속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특공무술 4단 등 종합 14단에 달한다. 인명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임무 관련 11개 분야 자격증까지 갖췄다.

서 상사는 2006년에는 태양의 후에 서대영 상사처럼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고, 2012년 휴가 중 고향 광주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에 옮겨 생명을 구한 선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특전사 여군과 ‘부대 커플’이라는 점도 같다. 2009년 육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가 인연을 맺은 특전사 서말이(30) 중사와 2013년 결혼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부부는 매일 반군국 아동을 돕는 정기 후원과 부대 인근 노인복지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서대영 상사는 “드라마 때문에 유명인사가 돼 쑥스럽다”며 “김은 베레모’ 자부심으로 태양의 후에 서대영 못지않은 명예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목포 옛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전남 목포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 목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옛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소녀상을 직접 제작한 김은성, 김서경 조각가는 소녀상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오히려 한국정부를 압박하며 방해하는 등 무례한 일본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성렬 건립추진위 위원장은 “기록되지 않은 폭력은 재발하고 기록하지 않은 아픔은 쉽

게 잊혀진다.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목포시의 기념비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730여명의 시민성금, 50여개 이상의 기관·단체·기업과 목포시 지원금 등 6000여만원의 성금으로 건립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기아차 광주공장, 생태나누리 후원금 20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왼쪽)은 지난 8일 이회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남도 생태나누리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남도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도 생태나누리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생태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녹색경영 사회공헌재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우경식·김명숙씨 아들 희남군 김정수(하순 농협연합RPC)·이옥희씨 딸 숙연양=17일(일) 오후 1시 서울 Y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
▲김창현(전 광주교육대 총장·현 죽호학원 이사장)·문성례씨 장남 도형군 유희렬·윤경심씨 장녀 고은양=16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드보네르 1층 보네르홀.
▲강성용·박춘자씨 장남 유락군 정병수(농협사료 나주공장)·이애순씨 장녀 다은양=17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마리아주스퀘어.

중친회

- ▲전주씨대 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승암) 월례회의=12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씨대 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합평분원(분원장 이석원) 정기총회=15

일(금) 오전 11시 합평군 축산업협동조합 3층 회의실, 문의 010-4155-0120.

동문회

- ▲제4회 재광 금일중 동문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남구 송원대학교 대운동장 문의 이경택 사무총장 010-3627-2273.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 등 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정부지원 아동·청소년 무료 교육생=광주시 북구

두암동 거주 14~24세까지(수급자·차상위·저소득 가정 포함) 30일(토) 선착순 마감, 피아노·바이올린·클라리넷·플루트·색소폰·드럼·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렘댄스 등 문의 010-3606-0230.

▲전남정보문화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자=전남 거주 창업 예정인 또는 창업초기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증 2년 이내) 최소 1년 임대 3월 21일(목)까지 모집, 영상·영화·방송·스마트미디어·전자출판업·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우대, 문의 061-280-7494.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301호 故정호진 님(남/64세) 401호 故김연환 님(남/80세)
402호 故조계호 님(여/86세) 101호 故민경자 님(여/90세)
102호 故서정원 님(여/84세)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 감독 010-9092-0343.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용·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회원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부음

- ▲박계수씨 별세 제환·상제(수자원공사)·상준(삼성내과원장)·근아씨 부친상 강영석(한국케미칼화학)씨 방부상=발인 11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배양제씨 별세 세현씨 부친상=발인 1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